

2023년 8월 9일 제32호

연구위원 오유진  
연구위원 김민태  
연구위원 김종현

# HIF 월간 산업 이슈(8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산업별 주요 이슈

#### 이차전지 국내 배터리 소재 부문의 한-중 협력 투자 증가

- 美 IRA 우회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양극재, 전구체,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4개월간 중국과 국내 기업의 합작 투자액은 5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 향후 발표될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지침에 따라 한-중 합작 투자사의 IRA 보조금 제외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국내 기업들은 IRA 정책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정보통신 네이버, 카카오의 콘텐츠 분야 해외 진출 확대

- 웹툰,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IP를 활용한 미디어믹스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음
- 웹툰, 웹소설은 낮은 제작비용에 따른 다양성, 실시간 소비자 반응 등으로 미디어믹스의 IP 원천 역할을 수행하며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지만, 해외 부문의 낮은 수익성은 리스크 요인

#### 해운 꺾이지 않을 탱커 시장, 2024년에도 강세 전망

- '23년 상반기 탱커 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OPEC 감산 등으로 인해 '22년 연말 대비 약세를 기록하였으나, 非OPEC 국가의 수출 확대와 장거리 항로 증가 영향으로 장기평균比 양호한 수익성 유지
- '24년 탱커 시장은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낮은 수주 잔량에 따른 제한적 신조선 유입 등을 바탕으로 우호적 수급환경을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품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 산업 이슈

## 이차전지

국내 배터리 소재 부문의 한-중 협력 투자 증가

## 정보통신업

네이버, 카카오의 콘텐츠 분야 해외 진출 확대

## 해운

꺾이지 않는 탱커 시장, 2024년에도 강세 전망

## C28202. 이차전지

### 국내 배터리 소재 부문의 한-중 협력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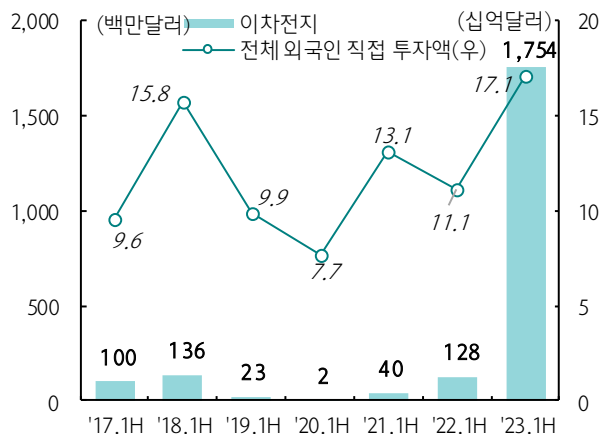
연구위원 오유진 yujin.oh@hanafn.com

※ **Summary** : 美 IRA 시행을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의 거래 확대 및 미-중 갈등에 따른 규제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중. 이에 최근 4개월간 한-중 합작 투자 발표액은 5조원을 상회. IRA 규정상 해외우려집단(FEOC)에서 조달되는 핵심광물은 '25년부터 친환경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FEOC 세부 지침에 따라 국내 한-중 합작 투자의 위험성이 존재. 각 기업들은 JV 지분 구조의 유연성 확보 등 사전에 FEOC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IRA 정책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 美 IRA 대응 등을 위해 '23년 상반기 배터리 부문의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이 크게 증가

- '23년 상반기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액은 전년동기비 약 14배 증가한 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냄
  -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며 전체 FDI 유입은 전년 동기보다 54.2% 증가한 170.9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기존 최고치였던 '18년 상반기(157.5억 달러)를 제침
- 미국은 주요 전기차/배터리 시장으로 '23년 3월말 공개된 美 IRA 친환경차 세부지침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마련하면 IRA 요구조건을 충족 가능
- 아시아 지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싱가포르밖에 없으며,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싱가포르보다 배터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한국으로 투자가 확대
  - 한편, 일본도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 미국과 별도의 IRA 보조금 혜택 협정을 체결(FTA 미체결)

그림1 | 국내 배터리 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상반기 기준)



주 : 이차전지는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표1 | 배터리 부문의 美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드선스

구분	대상	IRA 지원 조건
배터리 부품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북미 생산
구성재료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동/알루미늄박, 전해질염, 전해질 첨가제 등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비율이상 채굴 또는 가공

자료 : 미 재무부

■ **미 IRA 우회 목적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개월간 중국과 국내 기업의 합작 투자액은 5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 IRA 시행을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의 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의 거래 확대 및 미-중 갈등에 따른 규제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중국 재활용 전문업체 거린메이(GEM)는 SK온·에코프로와 함께 1조 2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화유코발트도 LG화학과 전구체 공장 건설을 진행 중
  - SK온·에코프로·거린메이는 국내 공장 설립에 앞서 '22년 11월, 전구체 원료인 니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합작공장을 짓고 니켈코발트수산화합물(MHP)를 생산('23.3Q~)하겠다고 발표
  -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19년 中 저장성에 전구체 공장을, '20년 우시에 양극재 공장을 각각 완공한 바 있으며, '22년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인 B&M이 LG화학 구미 양극재 생산법인에 지분 투자
- 엘앤에프는 지난 3월 시노리튬 머티리얼즈와 협력하여 대구에 수산화리튬 합작사를 만들고, 하이니켈 양극재의 원료인 수산화리튬 정제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세부 사항 협의 중)
-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5월,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구체 및 니켈 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6월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CNGR과 협력하여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황산니켈 및 전구체 생산을 추진한다고 발표
  - 포스코그룹은 '30년까지 리튬(42만 3천톤), 니켈(24만톤), 양극재(100만톤), 음극재(37만톤)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자체 투자는 물론 중국 등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투자 활발
- 한국 기업과의 협력 외에 중국 배터리 기업의 단독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롱바이는 지난 7월, 새만금에 연간 8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 롱바이(Ningbo Ronbay New Energy Technology)는 CATL의 삼원계 양극재 최대 공급사이며, 롱바이 자회사 재세능원은 충북 충주에 전구체 6천톤, 양극재 2만톤 생산 시설을 기 구축('23.1Q~)한 바 있음

표2 | 최근 한-중 배터리 소재 협력 투자 및 중국기업의 국내 투자 동향

국내 기업	중국 기업	위치	투자규모	생산제품	연간 생산목표	발표
에코프로, SK온	거린메이 (GEM)	전북 군산 (새만금)	1조 2,100억원	전구체	2024년, 5만톤	'23.3
엘앤에프	시노리튬 머티리얼즈	경북 대구 (합작사)	협의중	수산화리튬	2025년, 협의중	'23.3
LG화학	화유코발트	전북 군산 (새만금)	1조 2,000억원	전구체	2029년 10만톤 (2026년 5만톤)	'23.4
포스코퓨처엠	화유코발트	경북 포항	1조 2,000억원	전구체, 니켈 원료	2027년, 협의중	'23.5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CNGR	경북 포항	1조 5,000억원	황산니켈, 전구체	2026년, 황산니켈 5만톤, 전구체 11만톤	'23.6
-	롱바이	전북 군산 (새만금)	미발표	전구체	8만톤	'23.7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 향후 발표될 美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지침에 따라 국내 한-중 합작에 대한 위험성 상존

- IRA 규정상 해외우려집단(FEOC, Foreign Entities of Concern)에서 조달되는 배터리 부품은 '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FEOC 판단 기준을 심의하는 중
  - '22년 말 발표된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미공개. 미 재무부는 FEOC 기준 등을 포함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23.6)했으며, 8월쯤 지침 공개할 예정
- 배터리 가치 사슬 내 중국의 높은 점유율과 거미줄처럼 얽힌 공급망을 고려할 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JV 지분율, 생산능력 확장 제한 등의 방식으로 중국 참여를 최소화할 가능성
  - 미국의 리튬 업체인 앨버말(글로벌 1위)은 중국에 다수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텐치 리튬은 칠레 리튬 회사인 SQM의 2대 주주임.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음
- 반도체법(Chips Act.)에서는 중국이 25%의 직·간접적 의결권만 갖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을 FEOC로 분류하고 있으며, 배터리에도 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한-중 합작사 상당수가 FEOC 대상
- FEOC 리스크 대응을 위해 LG화학은 필요하다면 합작사 내 화유코발트의 지분을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언급

### ■ 대외 정책 불확실성 속 전구체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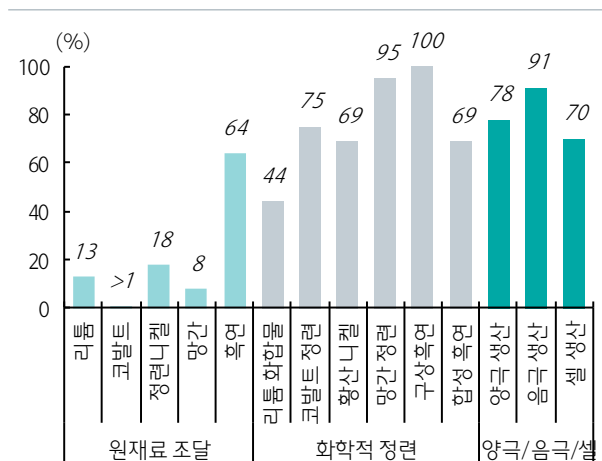
- 국내는 전구체 수요의 7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약 98%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만큼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게 되면 국내 소재 공급망이 강화될 수 있음
- 중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 FEOC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IRA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유리
- 한편, 내년 11월로 예정된 美 대선에서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FEOC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IRA 세부 지침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그림3 | 글로벌 배터리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점유율



주 : 2022년 기준  
자료 :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green car congress 재인용

표3 | 미 상무부에서 공시한 해외우려국가 명단

항목	해당국가
주요 우려 국가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특별 주의 국가 (Special Watch List Countries)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베트남
주요 우려 집단 (Entities of Particular Concern)	알샤바브, 보코하람,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 후티족, ISIS-사헬, ISIS-서아프리카, 자마트 나스르 알-이슬람 알 무슬림인, 탈레반,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바그너 그룹

주 : 2022년 11월 30일 지정 기준  
자료 : state.gov

## J. 정보통신업

### 네이버, 카카오의 콘텐츠 분야 해외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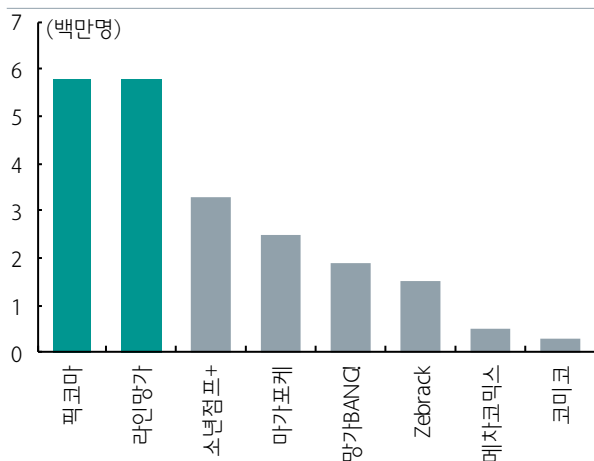
연구위원 김문태 kmt@hanafn.com

◆ **Summary** : 웹툰,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선호 트렌드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 일본 웹툰 시장에서 양사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네이버가 웹툰, 웹소설 1위 플랫폼을 보유. 또한 웹툰 및 웹소설 IP의 미디어믹스(영상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글로벌 OTT, 해외 리메이크 등으로 시장을 확장. 웹툰의 시장 규모는 작지만 미디어믹스를 통해 영화, 게임, 드라마 등으로의 전환에 따른 성장 잠재력 보유. 낮은 제작비용에 따른 다양성, 실시간 소비자 반응 등으로 웹툰, 웹소설은 미디어믹스의 IP 원천 역할을 수행하며 플랫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됨. 다만, IP 및 플랫폼 인수 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따른 해외 부문의 열악한 수익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 네이버, 카카오는 일본, 북미 등 글로벌 웹툰, 웹소설 시장을 선도하며 사업 확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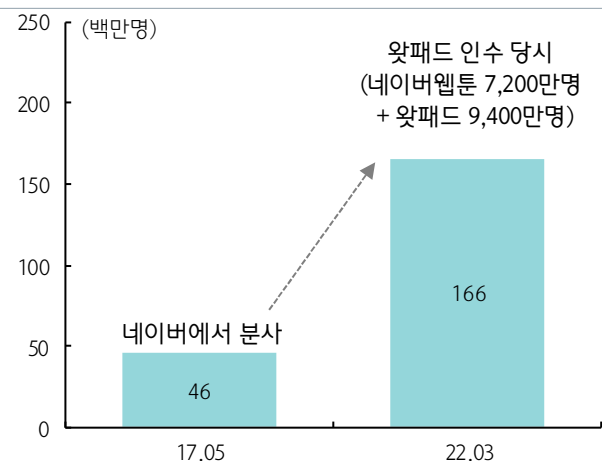
- '다음 웹툰'이 '03년, 네이버 '오늘의 웹소설'이 '13년에 출시된 이후 웹툰 및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선호 트렌드에 따라 성장하면서 '20, '22년에 각각 국내 시장 규모 1조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에서 축적한 IP와 플랫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
  - 미국, 일본 중심의 기존 만화와 달리 웹툰은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 분야로 K-콘텐츠의 흥행을 견인하고 있음
  - 다만, 웹소설의 경우 번역 문제로 웹툰 대비 해외 진출이 제한되어 미디어믹스(웹툰, 영상화) 또는 로컬 플랫폼 인수를 통한 글로벌화가 일반적
- 일본 웹툰 시장에서는 양사가 1위(카카오픽코마), 2위(라인망가)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 혼자만 레벨업', '여신강림' 등 한국 IP의 현지 버전이 일본에서도 흥행
  - 일본 웹툰 시장에서 카카오 픽코마, 네이버 라인망가의 MAU는 각각 약 580만 명 수준으로 로컬 플랫폼과의 큰 격차를 나타내며 1, 2위를 차지

그림4 | 일본 주요 웹툰앱 MAU



주 : PC 트래픽 미포함  
자료 : Sensor Tower, 신한투자증권 재인용

그림5 | 네이버웹툰 글로벌 MAU



주 : 2022년 3월 MAU는 네이버웹툰, 왓패드 단순 합산  
자료 : 네이버, 언론자료

- 북미에서는 네이버가 웹툰(네이버웹툰), 웹소설(왓패드) 시장의 1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 또한 타파스(웹툰·웹소설), 래디쉬(웹소설) 등을 인수하며 북미 시장 공략
  -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MAU는 7,200만 명으로 글로벌 1위(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서비스)이며, 왓패드 인수로 웹툰, 웹소설 통합 월 1.6억명이 방문하는 글로벌 빅플랫폼으로 성장

### ■ 웹툰, 웹소설 IP의 미디어믹스(영상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한 시장 규모 확장 예상

- 네이버, 카카오의 영상화된 웹툰, 웹소설 IP 수는 누적으로 각각 70여 편, 40여 편에 달하며 이중에서 '스위트홈', 'D.P.' 등은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음
  - 또한 웹툰 IP를 활용한 드라마 '이태원클래스'는 일본에서 드라마 '룻폰기클래스'로 리메이크된 바 있으며, 웹툰 '신의 탑', '노블레스', '고수' 등은 일본에서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 웹툰, 웹소설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다른 장르 대비 작은 편이지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믹스를 통한 영화, 게임, 드라마 등으로의 전환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대
  - 웹툰이 포함된 글로벌 만화 시장은 126억 달러 수준이지만, 미디어믹스를 통해 확장 가능한 영화, 게임, 방송 등은 각각 215억 달러, 2,063억 달러, 방송 4,456억 달러 규모(2021년 기준)

### ■ 웹툰, 웹소설은 IP 원천 역할을 수행하며 미디어믹스의 플랫폼 선순환 구조로 성장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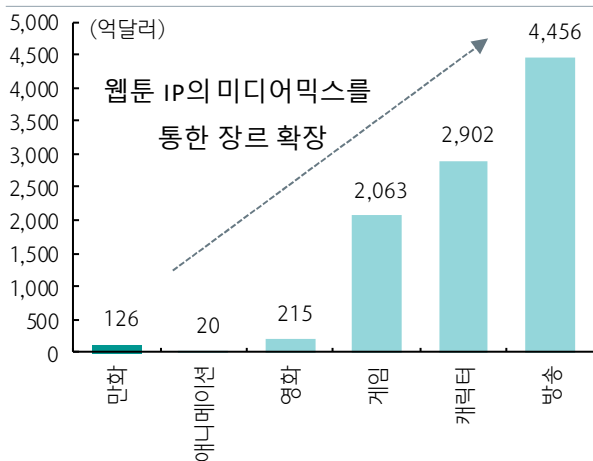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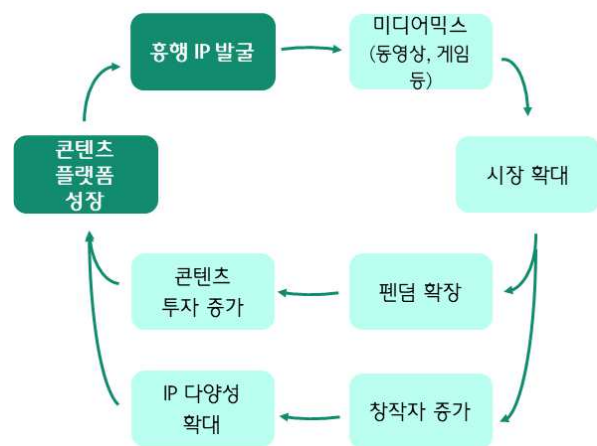
- 웹툰, 웹소설은 제작비용이 낮아 IP 다양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디어믹스 원천 IP의 '황금어장' 역할을 수행
- 양사는 보유한 IP를 활용한 미디어믹스 저작물의 흥행이 팬덤 및 창작자 유입 증가를 유발하며 플랫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 다만, IP 및 플랫폼 인수 비용(SM 1.4조 원, 왓패드 6,500 억원 등), 글로벌 마케팅 비용 등에 따른 해외 사업의 열악한 수익성은 사업 지속성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미국 네이버 웹툰 사업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20년 254억에서 '22년 1,089억원으로 확대 

그림6 | 글로벌 콘텐츠 규모와 웹툰 미디어믹스의 잠재력



주 : 2021년 추정치  
자료 : 한국콘텐츠 진흥위(2022.12)

그림7 | 미디어믹스를 통한 콘텐츠 플랫폼의 선순환 모델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I. 해운

### 꺾이지 않을 탱커 시장, 2024년에도 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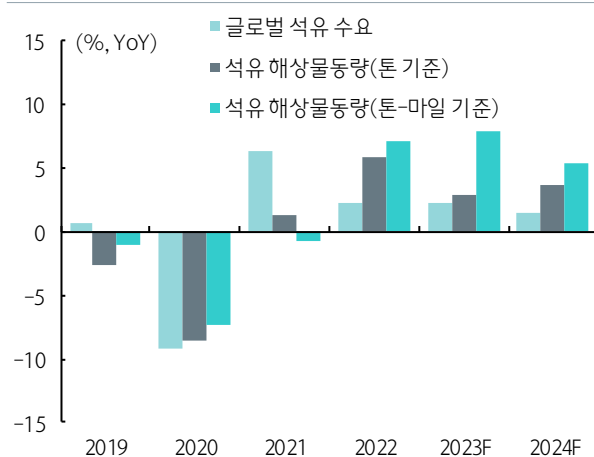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jh.kim\_@hanafn.com

※ **Summary** : 2023년 상반기 탱커 운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OPEC+의 감산 등으로 인해 2022년 연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장기평균 대비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 2023년 하반기에는 OPEC+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원유 수출량 확대로 인해 물동량과 운항거리가 증가하며 톤-마일 성장세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탱커 수주잔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선박 공급 증가율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원유와 제품유 모두 중국과 개도국의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물동량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어 2024년 탱커 시장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 '23년 상반기 탱커 시장은 '22년 하반기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익성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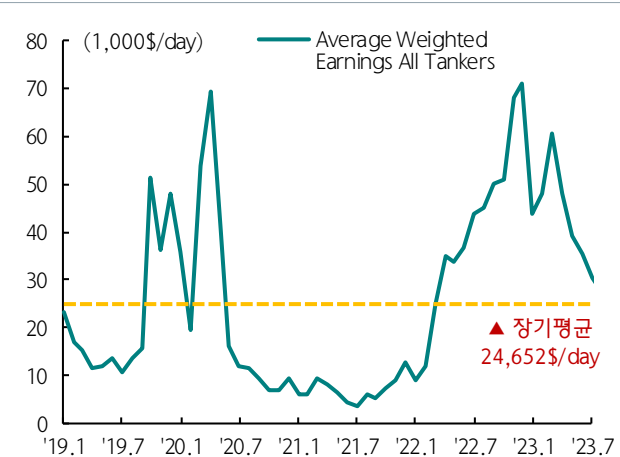
- '22년 탱커 시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석유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교역구조 재편의 영향으로 장거리 운항이 증가하면서 운임 초강세 기록
  -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율(% , YoY) : 0.7('19) → -9.2('20) → 6.3('21) → 2.2('22) → 2.2('23F)
  - 석유 해상물동량(톤-마일) 증가율(% , YoY) : -1.1('19) → -7.3('20) → -0.8('21) → 7.2('22) → 7.9('23F)
  - 탱커선 평균 운임(1,000\$.day) : 35('22.2Q) → 46('22.3Q) → 64('22.4Q) → 52('23.1Q) → 40('23.2Q)
- '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OPEC+의 감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운임이 하락하였으나, 장기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상황을 유지
  - OPEC+의 감산으로 운임은 전 연말 대비 낮은 수준이나 중국의 수요 회복으로 상반기 상황 양호
  - '23년 7월 탱커 평균 운임은 전월비 14.5% 하락하였으나, 장기평균 대비 23.1% 높은 상황
  - '23년 7월 한 달간 사우디는 원유 86만b/d 감산, 러시아는 8월 원유 수출 50만b/d 감축 예정

그림8 | 글로벌 석유 수요 및 석유 해상물동량 증가율



자료 : Clarkson

그림9 | 탱커 전 선형 가중평균 운임 추이



자료 : Clarkson

■ '23년 하반기는 OPEC+의 감산에도 미국, 이란 등의 수출량 증가로 일부 상쇄되면서 톤-마일 성장 예상

- OPEC+의 감산합의가 '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글로벌 석유 공급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감산 물량을 일부 상쇄하는 한편, 석유 수출을 위한 운항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톤-마일 성장세는 양호할 전망
  - 글로벌 석유 공급 증가율(% YoY) : -6.4('20) → 1.9('21) → 4.4('22) → 0.7('23F) → 1.9('24F)
  - 글로벌 석유 해상물동량(톤-마일 기준, % YoY) : -0.8('21) → 7.2('22) → 7.9('23F) → 5.4('24F)
- 원유는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세를 기반으로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글로벌 수출량은 2.3%, 해상물동량(톤-마일 기준)은 6.6% 증가할 전망
- 제품유는 남아시아의 수입량 증가와 유럽의 러시아산 대체 공급처 확보 수요가 더해지면서 '23년 글로벌 수출량은 4.0%, 해상물동량(톤-마일 기준)은 11.9% 증가할 전망

■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와 낮은 수준의 수주잔량에 따른 우호적 수급환경으로 탱커 운임 강세는 지속될 전망


- OPEC은 '24년에는 중국, 인도 등 주요 석유 소비국 및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 회복과 산업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5%, 석유 수요 증가율은 2.2% (연평균 104.3백만b/d)로 전망
- '24년에는 낮은 수준의 수주잔량에 따른 제한적 신조선 유입에 더하여 IMO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저속운항 등으로 인해 VLCC 선박 운영률이 상승하면서 선박 공급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탱커 시장 운임 강세는 '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
  - 탱커선 총 선대 대비 수주잔량(%) : 11.8('19) → 8.8('20) → 8.7('21) → 7.5('22) → 4.4('23)
  - 탱커선 선박 증가율(%) : 5.9('19) → 3.0('20) → 1.8('21) → 3.5('22) → 2.1('23F) → 0.5('2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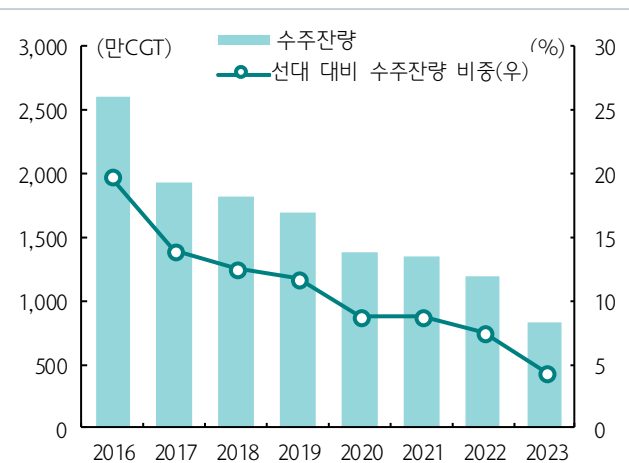
표4 | 글로벌 석유 공급 전망

(단위 : 백만b/d, %YoY)

	2020	2021	2022	2023F	2024F
Global	94.2	96.0	100.2	100.9 (0.7)	102.9 (1.9)
중동	27.4	27.9	30.7	29.6 (-4.0)	30.4 (-3.0)
미주	29.4	29.9	31.6	33.4 (6.0)	34.3 (3.0)
아프리카	7.0	7.4	7.1	7.2 (1.0)	7.2 (0.0)
북해	3.2	3.0	2.8	3.1 (10.0)	3.2 (2.0)
기타	21.3	21.5	21.6	21.1 (-2.3)	21.2 (0.5)

자료 : IEA

그림10 | 탱커선 수주잔량 추이



자료 : Clarkson

# 산업별 주요 지표

##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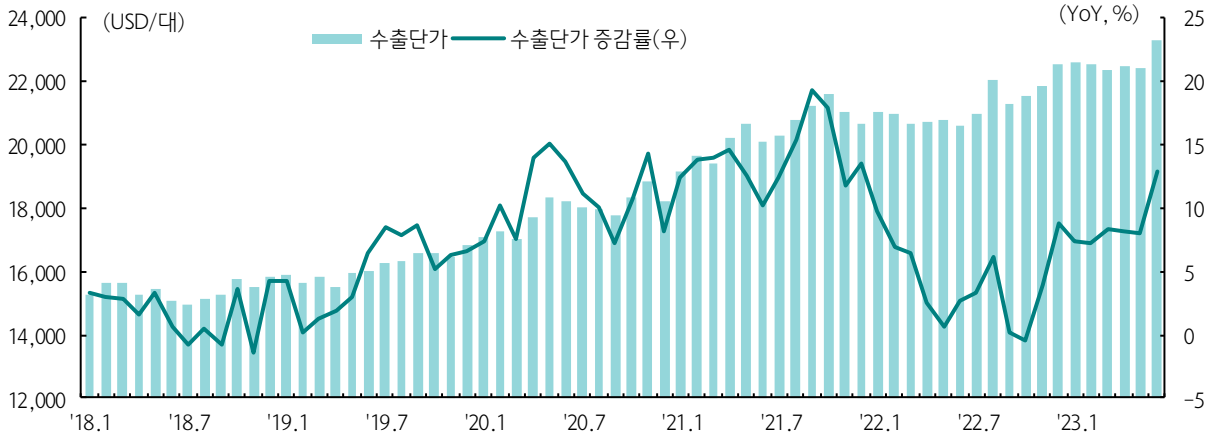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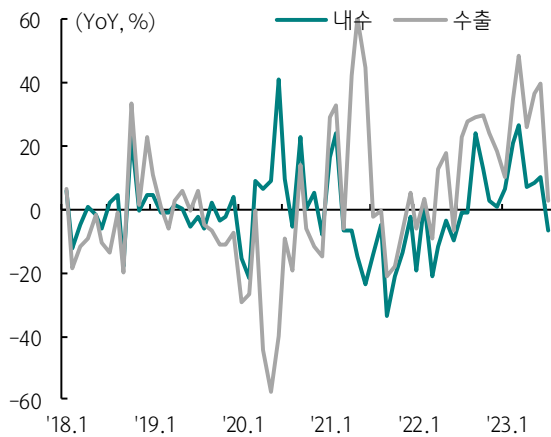
그림 11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및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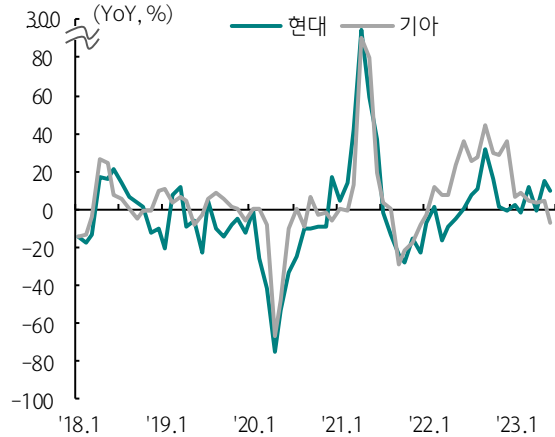
	22.12	23.1	23.2	23.3	23.4	23.5	23.6	전월비(%)	전년비(%)
수출단가(\$/대)	22,525	22,584	22,515	22,354	22,452	22,443	23,270	▲3.7	▲12.8

그림 12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주 : 7월 실적은 잠정치, 내수판매는 국산차 기준  
자료: KAMA

그림 13 |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23.5	23.6	23.7	전월비(%)	전년비(%)		23.4	23.5	23.6	전월비(%)	전년비(%)
내수판매량(대)	130,876	134,521	114,769	▼14.7	▼6.6	현대차 해외생산량	176,284	182,537	195,237	▲7.0	▲9.7
수출량(대)	247,406	240,327	228,976	▼4.7	▲2.8	기아 해외생산량	111,817	121,975	122,601	▲0.5	▼7.4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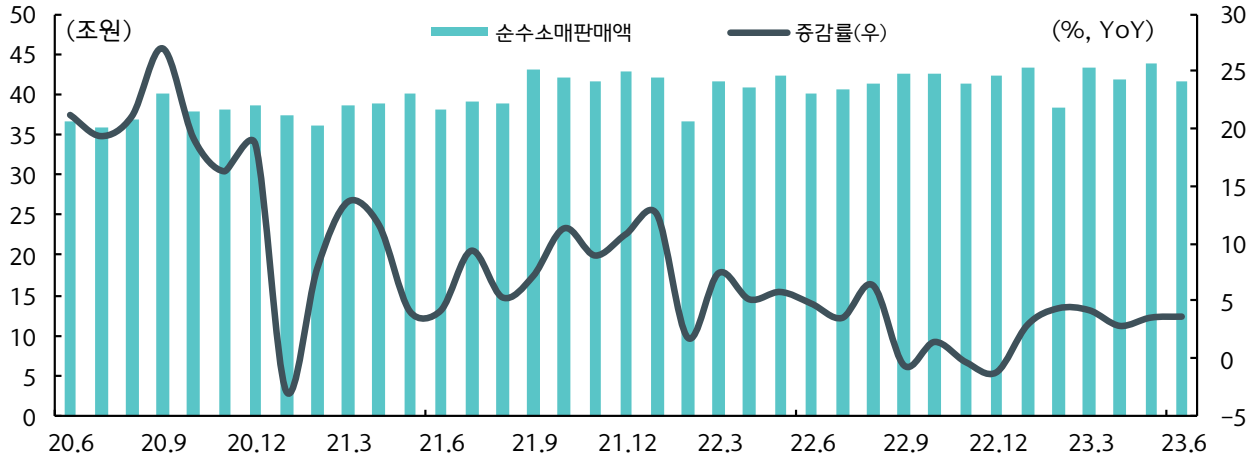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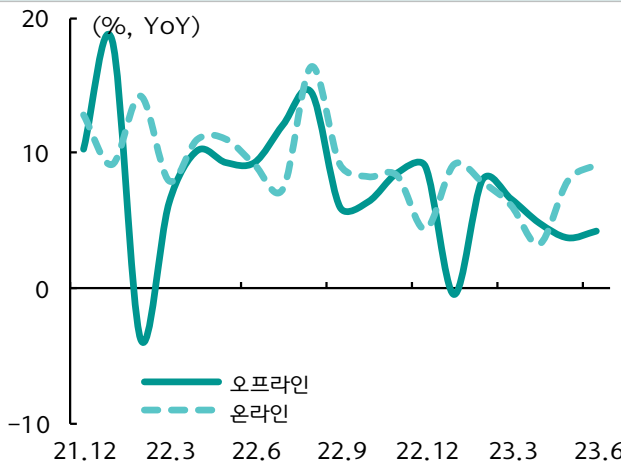
그림 14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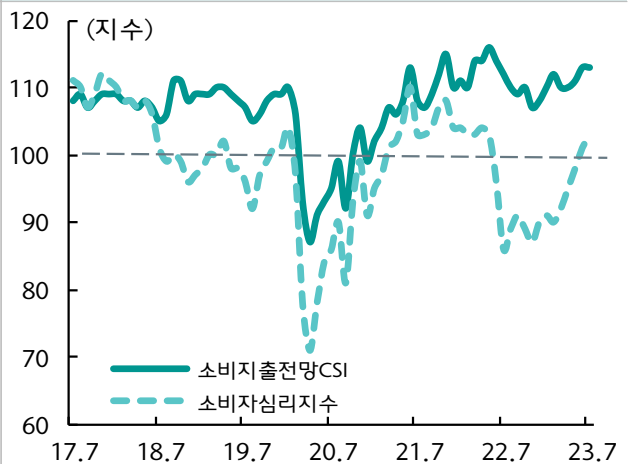
소매판매액 (조원)	22.12	23.1	23.2	23.3	23.4	23.5	23.6	전월비(%)	전년비(%)
순수소매	42.3	43.3	38.2	43.2	41.9	43.9	41.5	▼ 5.5	▲ 3.6
백화점	3.5	3.1	3.0	3.4	3.5	3.8	3.2	▼ 14.6	▲ 7.1
대형마트	3.1	3.6	2.5	2.9	2.9	3.0	2.9	▼ 2.2	▲ 6.5
전문소매	15.6	17.0	14.6	16.6	16.1	16.6	15.4	▼ 6.9	▲ 3.5

그림 15 |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주 : 3월 실적은 잠정치  
자료: KAMA

그림 16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KAMA

매출 동향 (% YoY)	23.4	23.5	23.6	전월비 (%)	전년비 (%)	심리 지수 (지수)	23.5	23.6	23.7	전월비 (%)	전년비 (%)
오프라인	4.8	3.7	4.2	▲ 0.5	▼ 5.1	소비지출전망 CSI	111	113	113	▲ 0.0	▲ 1.0
온라인	3.2	7.9	9.1	▲ 1.2	▲ 0.0	소비자 심리지수	98	101	103	▲ 2.0	▲ 17.0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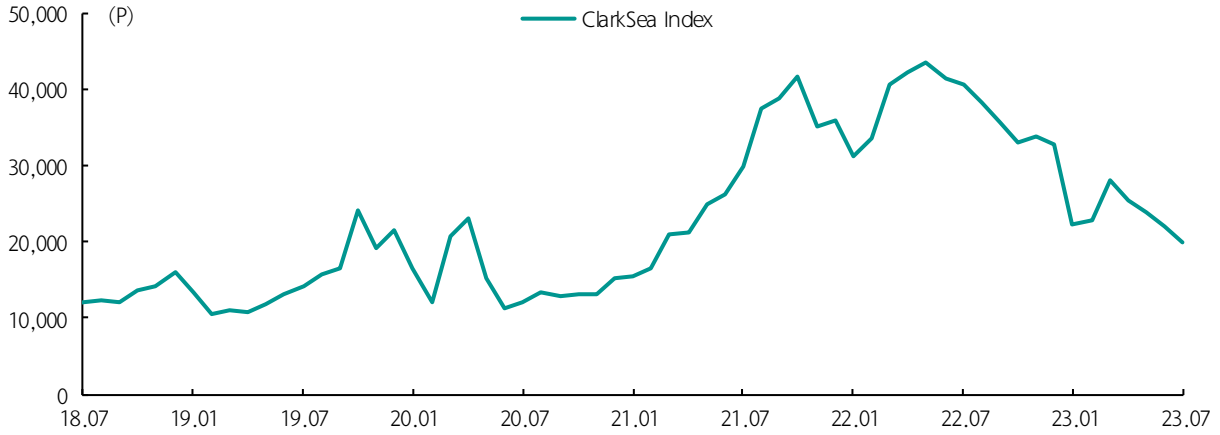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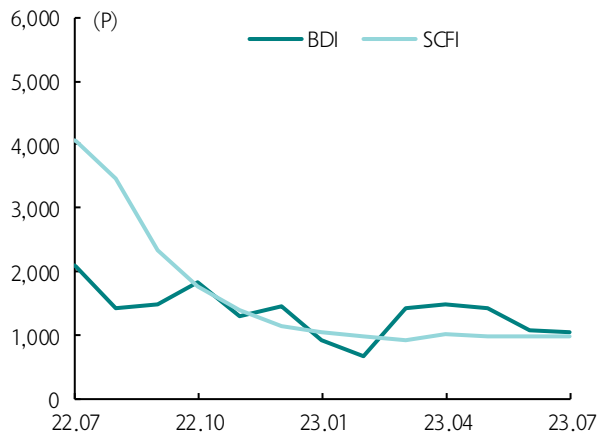
그림 17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sea Index)



자료: Clarkson

운임 지수 (\$/Day)	23.1	23.2	23.3	23.4	23.5	23.6	23.7	전월비(%)	전년비(%)
Clarksea Index	22,363	22,725	27,973	25,419	23,853	21,960	19,982	▼9.0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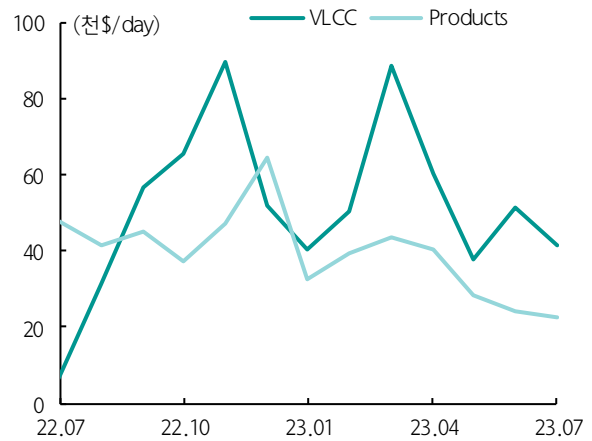
그림 18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운임 지수 (P)	23.5	23.6	23.7	전월비 (%)	전년비 (%)
BDI	1,416	1,082	1,040	▼3.8	▼49.9
SCFI	984	964	977	▼49.9	▼76.0


그림 19 | 탱커선 운임(Earnings)



자료: Clarkson

운임 (\$/Day)	23.5	23.6	23.7	전월비 (%)	전년비 (%)
VLCC	37,794	51,770	41,524	▼19.7	▲493.3
Clean Products	28,201	24,088	22,875	▼5.0	▼51.9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